

현지 교사/ 동페런츠를 찾습니다.



2011년 2월 23일

남아프리카 단기교사를 찾습니다. 3명의 아이를 둔 강명원 선교사님께서 단기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한국초등학교 수업외에 영어수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MK교사를 요청하는 가족소개
강명원, 이희준 선교사 (종신출신목사, 한국파송은 어깨동무사역원, 현재 DTS훈련중)

자녀들 : 강은성 (큰아들, 초등5학년), 강은빈 (둘째 딸, 초등 3학년), 강현성(막내 , 초등1학년입학연령)
* 이들은 약 1년간 요한네스버그 공립학교 다님.

강은성 소개

은성이가 현재 친구가 없이 동생들과만 있어서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고 종종 한국이 그리워서 울기도 한다고 합니다. 착한 소년이지만 예민한 형입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해서 종종 작곡하기도 하고, 연극을 만들어서 자주 공연할 정도로 창의성이 있으며 다양한 것들에 흥미가 많습니다.

강은빈소개

은빈이는 그림그리는 것과 손으로 창작하는 것에 달란트가 있고 성격은 낙천적이며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공부는 오빠에 비해서 집중력이 있어서 현지학교에서도 잘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강현성 소개

현성이는 남자다운 소년으로, 씩씩하고 활동량이 많고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1년간 유치원 생활에서도 온 학교를 휘집고 다니면서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를 물었을 정도로 용기가 있습니다. 막내답게 마마보이의 모습을 보일때도 있지만 가장 적응력이 좋았습니다.

2. DTS상황과 요청

현재 6개월간 DTS를 받는 곳은 Drakensberg라는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환경으로는 목장으로서는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대부분이 유치원 연령대의 어린이들 같습니다.

3. 자원자를 위한 기타 정보

1) 비자 : 남아공은 한국인에게 1개월 무비자를 발행. 자원자가 있다면 DTS에서 1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보내준다고 함.

2) 비용 : 비행기값 외에 생활비

생활비는 DTS를 기준으로 숙비모두 합쳐서 약 4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환율에 의하여 35만원이 될수도 있지만 대략 이정도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만약 자원자가 있으면 Heavenly Net이란 네트워크에서 생활비 절반인 20만원을 후원해주게 됩니다.

3) 기타 정보

참고로 이곳에서 DTS와는 별도로 5월부터는 영어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한두사람 한국사람이 더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강명원 목사는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희준 선교사는 자녀를 돌보면서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원하는 MK교사가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DTS를 마치면 강명원 목사가 요한네스버그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원하는 영어공부를 MK들이 학교를 간 사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돔 페런츠



한국 선교에 든든한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아카데미가 급하게 기숙사 대리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아카데미는 MK학교로 세워져서 타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개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참여하시려 했던 분이 개인 사정으로 오실 수 없는 사정으로 호스텔 대리부모 사역자를 긴급하게 찾습니다.

8개 나라에서 모인 20여명의 MK들이 살고 있는 이 기숙사는 근처에 있는 한국 아카데미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기숙사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 국제 학교 돔 페런츠

포항에 있는 한동 국제학교에서 돔 페런츠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가 확장되는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사역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안팎에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있으며 약 20명이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짧게는 6개월정도부터 사역이 가능하시며 이번 3월에 개강 준비를 하는 가운데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MK/TCK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참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